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헤드라인뉴스 무인 소방로봇 도입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사회·복지

아동상담에 '24시간 다언어 전화통역 서비스' 도입

산업·경제

지역 상점가 활성화 및 자립 지원

도시계획·주택

비어있던 산업부지를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로 재개발

수공업품 특성화 상업시설 '딜리하트(Dilli Haat)' 운영

구(舊) 공항부지를 '저밀도 복합 커뮤니티'로 개발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무인 소방로봇 도입해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¹⁾ / 환경·안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주는 대중교통시설, 협소한 주택가, 화학물질이 있는 위험지역 등에서 발생하는 화재 사고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무인 화재 진압용 소방로봇을 도입. 주는 앞으로도 구조용 소방로봇을 도입하는 등 재난 발생 시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예정

배경 및 목적

- 각종 재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보다 신속한 대응이 요구
 - 자카르타주는 1,000만 명 이상의 인구가 밀집되어 있고, 협소한 골목이 산재하여 매년 화재로 큰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
 - 특히, 주유소·공장·화학 창고 등 도시 내 위험지역에서의 화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초기에 진압하지 않으면 재산 피해가 막대해지는 문제가 있음
 - 또한, 홍수, 지진 등 화재 이외의 재난 현장에서도 소방인력의 신속한 대응이 요구
- 스마트도시 추진에 따라 지하철(MRT), 경전철(LRT), 간선급행버스(TransJakarta) 등의 도입으로 대중교통 편의성을 향상하고 있으나,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하는 일이 중요해짐
 - 인접국인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미 대중교통시설에서의 화재 및 테러 진압 목적으로 무인 소방로봇을 도입한 바 있음

주요 내용

- 자카르타주는 무인 소방로봇으로 Dok-Ing MVF-5 U3 모델과 LUF 60 모델을 각각 1기씩 구매하고 활용을 시작
 - Dok-Ing MVF-5 U3 모델은 주유소·공장·화학 창고 등 위험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 진압 시 주로 사용하며, 320억 루피아(약 28억 원)에 크로아티아 기업으로부터 구매
 - 최대 1.5km 거리에서 리모컨으로 안전하게 조종할 수 있으며, 로봇 내 물탱크에는

1) 자카르타주는 「자카르타 수도특별지역에 관한 법(2007년 29호)」에 따라 특별주(province)의 지위를 가지며, 주민들의 직접선거로 뽑힌 주지사가 행정수장을 맡음. 주 내에는 동·서·남·북·중앙 자카르타의 5개 행정시와 연안 도서로 이루어진 풀라우 스리부(Pulau Seribu) 행정군이 있으며, 각 시장과 군수는 선출직이 아니라 주지사가 임명하는 임명직이며 의회는 없음.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은 주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며, 5개 행정시와 1개 행정군은 계획과 정책의 실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함

- 최대 2,500 ℓ 의 소방수(消防水)와 500 ℓ 의 포소화약제(泡消火藥劑)²⁾ 적재 가능
- 최대 수압은 15bar(약 3,000rpm)³⁾로, 분사 시 일반 소방수(消防水)는 55m, 포소화약제(泡消火藥劑)는 45m까지 분사 가능
- 또한, 집게(gripper)와 견인용 슬링(sling, 무거운 짐을 끌 때 사용하는 체인 또는 로프)이 장착되어 있어 화재 현장의 잔해를 최대 6~10톤까지 신속하게 제거할 수 있음
- LUF 60 모델은 Dok-Ing MVF-5 U3보다 소형으로, 지하철역과 같이 소방관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진압할 때 주로 사용하며, 오스트리아 회사로부터 80억 루피아(약 7억 원)에 구매
 - 최대 30도 경사의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으며, 300m 반경 내에서 리모컨으로 조종할 수 있고, 로봇 내 에어 덕트(air duct, 공기 유도장치)를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 내의 화재 연기를 빨아들여서 최대 99m 지점까지 배출 가능
 - 자체 물탱크는 없으나, 방수(放水) 차량이나 소화전(消火栓)·저수지 등으로부터 최대 135m 떨어진 지점에서 소화(消火) 호스를 통해 연결할 수 있으며,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지하철역 내 터널이나 협소한 주택가의 화재에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음
 - 물대포·물안개·약품 형태로 최대 70~80m까지 방수(放水) 가능하며, 최대 600kg의 잔해를 제거할 수 있음
 - 또한, 수중(水中)에서도 작동 가능한 펌프가 있어서 잦은 홍수 발생 시에도 효과적으로 기능
- 卅정부는 2020년에도 구조용 소방로봇 3기의 구매 예산으로 447억 루피아(약 39억 원)를 책정



-
- 2) 포소화약제는 거품(foam)을 발생시켜 화재 난 곳의 표면을 덮음으로써 가연성 증기와 산소의 접촉을 방지하는 질식 효과와 거품 내에 함유된 수분에 의한 냉각 효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약제임
- 3) bar는 압력의 표기 단위로 1bar는 물을 수직으로 약 100m 보낼 수 있는 힘이며, rpm은 엔진의 분당 회전수임. 살수차의 경우 물살 세기의 단위로서 보통 bar와 rpm을 병기하는 것이 원칙임



[그림 1] 자카르타에서 도입한 무인 소방로봇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2/12/jakarta-purchases-fire-fighting-robot-with-plans-to-buy-more.html>

<https://www.thejakartapost.com/news/2020/02/17/jakarta-turns-robots-battle-against-fires.html>

<https://smartcity.jakarta.go.id/blog/466/3-alasan-utama-mengapa-jakarta-perlu-robot-pemadam-kebakaran>

<https://wartakota.tribunnews.com/2020/02/20/anies-baswedan-pamer-robot-pemadam-canggih-luf-60-intip-fakta-menariknya?page=all>

<https://megapolitan.kompas.com/read/2020/02/13/16332401/pemprov-dki-koreksi-harga-robot-pemadam-kebakaran-yang-disebut-rp-374>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지역 상점가 활성화 및 자립 지원

일본 / 산업·경제

일본 중소기업청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커뮤니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상점가가 교외형 상업시설 증가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상점가의 중장기적 발전 및 상점가 자립을 촉진할 목적으로 ‘지역상업자립촉진사업’을 시행

배경 및 목적

- 상점가는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과 동시에, 지역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생활기반으로 기능
 - 그러나 최근 상점가는 도시 근교의 교외형 상업시설 증가나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 변화로 어려움에 직면
- 상점가가 지닌 이러한 기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요구나 해당 상점가를 둘러싼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한 대책 마련이 중요
 - 지역주민의 규모나 활동 범위, 소비지출액 등의 요인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이 상점가에 요구하는 기능에 대응하는 대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

‘지역상업자립촉진사업’의 주요 내용

- 일본 중소기업청은 상점가가 단독 또는 민간기업이나 특정비영리활동법인 등과 협력해 상점가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자립 촉진을 위해 실시하는 대책을 지원하는 ‘지역상업자립촉진사업’을 시행
 - 상점가는 지역 자원 활용, 구조 개선, 외국인 대응, 지역교류, 신진대사, 저출산·고령화 등 6개 분야의 공공성 높은 대책을 시행
 - 중소기업청은 자립촉진 조사·분석에 대해서는 500만 엔(약 5,600만 원)을 상한으로 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자립촉진지원사업에 대해서는 2억 엔(약 22억 4,400만 원)을 상한으로 비용의 3분의 2 이내를 지원
- 또한 중소기업청은 상점가의 도전을 홍보함으로써 다른 상점가의 도전을 촉진하고 지역 상점가의 활성화를 도모

- 중소기업청은 지역상업자립촉진사업을 활용한 대책의 배경이나 대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과제 대응 등을 정리하고, 이러한 대책을 시행하려고 하는 상점가나 동일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 상점가가 참고할 수 있는 사례집을 만들어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중소기업청이 지역상업자립촉진사업을 활용한 상점가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상점가의 가장 큰 문제는 방문자·매출 감소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는 업종 구성이 다양하지 않은 점, 맛집과 같은 고객유치의 핵심이 되는 점포 부재, 매력적인 점포 부족, 경영자의 고령화와 이에 따른 경영자 계승 문제, 빈 점포 증가, 대형 점포와의 경쟁, 지역의 소비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순으로 조사됨
 - 상점가의 도전 중에 직면한 가장 큰 과제는 상점가에 활력을 불어넣을 인재 확보 문제로 나타났음. 대책 시행 기간, 자금조달, 상품·서비스 개발, 대책 추진에 필요한 절차, 정보전달, 민간기업 등과 협력해 대책을 추진하는 경우 협력기관 관련 문제 등이 그 뒤를 이음
- 중소기업청이 홍보한 상점가의 주요 도전 사례
 - 공연장을 개설하여 ‘문화·오락을 즐길 수 있는 상점가’ 이미지를 강화하고, 공연장의 다면적인 이용과 상점가와 공동 기획을 통해 가족·단체·여성 고객 대상으로 집객력(集客力)을 향상한 고베市 사례
 - 인근 주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문화·오락 관련 시설 이용 시 외식·쇼핑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2018년 7월 공터를 활용해 고객 유치의 중심이 되는 공연장을 개관(운영 주체: NPO법인인 신카이치 마을 만들기 NPO)
 - 공연장 입구에 상점가의 역사나 공연 목록, 공연장과 상점가가 함께 진행하는 서비스 등을 소개하는 내용물 게시
 - 공연장은 음식점이 많은 상점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오후 2시를 공연 시작 시각으로 정하고, 연간 360일 정도 공연을 하거나 대관을 해주는 등 다면적으로 활용하고, 상점가와 연계한 기획(예를 들어 공연 티켓 지참 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고객 유치를 꾀함
 - 분산된 상점가를 일체화하는 지역일체화센터를 정비하고 휴식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창출함으로써 방문자의 장시간 체류를 도모한 가와사키市 사례
 - 4개 구역으로 분산된 상점가의 유동인구를 늘리고 이용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중앙에 지역일체화센터를 정비하고, 각 점포의 상품 개발이나 이벤트 정보를 파악해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일체감 있는 상점가로 재편
 - 상점가에서는 방문객에게 휴식과 교류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보다 많은 고객이 상점가에 장시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해 집객력(集客力)을 향상

- 상점가 운영에 있어서 상점회 사업위원회나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에너지를 적극 활용해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

<https://www.chusho.meti.go.jp/shogyo/shogyo/2019/190301jireisyu.htm>

<https://www.chusho.meti.go.jp/shogyo/shogyo/2019/190301jireisyu.pdf>

https://www.chusho.meti.go.jp/shogyo/shogyo/shoutengai77sen/download/77sen_all.pdf

권 용 수 통신원, dkrnlwjstjf@naver.com

수공업품 특성화 상업시설 ‘딜리하트(Dilli Haat)’ 운영

인도 델리 NCT¹⁾ / 산업·경제

인도 델리 NCT 정부는 문화관광 특성화를 목적으로 ‘딜리하트(Dilli Haat)’ 3개 구역을 운영 중. 딜리하트는 델리 노천시장이라는 의미로, 수공업 제품의 판매품목을 15일 주기로 변경하여 상품 구색을 강화하고, 다양한 문화공연을 선보이는 공연장과 다채로운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식음료 매장 등을 통한 차별화로 고객층을 확대하고 있음

‘델리 노천시장’ 딜리하트의 현황

- 델리 NCT 정부 산하 델리관광교통개발공사는 인도의 지역별 고유문화와 연계한 수공업 콘텐츠를 주요 테마로 하여 3개 구역의 딜리하트(Dilli Haat)를 상설 운영 중
 - 딜리하트는 델리 노천시장이라는 의미
 - 서부 지역의 장크푸리(Jankpuri)에 위치한 세 번째 지점(支店)은 INA, 피탐푸라(Pitampura)에 있는 딜리하트의 성공에 힘입어 추가로 조성된 곳

장크푸리 구역 딜리하트의 주요 내용

- 장크푸리 구역의 딜리하트는 지하철역 인근에 위치하여 교통이 편리한 9.8에이커(4만㎡) 면적에 12억 루피(약 19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4년에 조성
 - 입장료 20루피(약 320원)를 지불해야 함에도 하루 평균 수천 명의 방문객이 이용할 정도로 활성화되었으며,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
- 기본 판매시설은 100개의 수공업품 가판대 매장, 74개 고정 실외매장, 46개 쇼펄 매장으로 구성. 편의시설은 960㎡의 전시관, 800석 규모의 공연장, 14개 푸드트럭과 15개 음식점, 넓은 주차공간 등이 있는 복합문화시설로 구성
 - 특히 수공업품 가판대 매장은 수공업품 개발위원회 소속 가내 수공예 장인(匠人)들의 사전 예약으로 15일마다 판매자가 변경됨에 따라 다채로운 수공업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가판대 매장의 15일간 임대료는 100루피(약 1,600원)이며, 고품질의 전통 수공업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판매

1) 델리 NCT(National Capital Territory of Delhi)는 올드델리(Old Delhi)와 뉴델리(New Delhi)를 합친 델리 수도직할지역. 뉴델리시가 인도의 수도

-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시회, 세미나, 축제 등이 열리는 전시관과 공연장을 통해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며, 필요시 일반인에게 대관 허용
 - 특히 800석 규모의 원형 극장은 문화예술행사가 자주 열리는 곳으로,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전통춤과 음악 관련 다양한 문화공연을 진행
 - 식음료시설로 지역별 향토음식을 맛볼 수 있는 14개 푸드트럭과 세계 대표 요리를 제공하는 15개 음식점을 조성하여 다문화 먹거리를 제공
- 이외 부대시설로 80개 침대를 갖춘 도미토리 호스텔과 5개의 공중화장실이 있으며, 노약자를 위하여 리프트, 경사로 등을 제공하여 접근성을 강화

평가

- 인도 29개 州의 전통문화를 체험하고 각 지역의 고유문화와 연계된 수공업품을 수공업자와 직거래할 수 있는 쾌적한 쇼핑공간을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역 수공업자에게 수공업품 판매공간을 제공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장인(匠人)에게 소득창출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지역문화 계승과 발전에 도움을 줌
 - 지역 주민들에게는 전통문화 체험 외에도 공연 관람, 식사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문화거점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
- 그런데 지역 랜드마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망고 축제, 전통 아로마 축제와 같은 특색 있는 문화공연 콘텐츠를 추가 발굴하여 외국인관광객 유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이외에도 상품 구색이 지역 수공업품 중심의 가죽제품, 의류, 전통보석류 등에 한정되어 있어 더 많은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보다 다양한 상품 구비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음



[그림 1] 수공업품 매장



[그림 2] 지역축제 때의 문화공연 모습

<https://www.deccanherald.com/content/421152/an-ultra-modern-haat-city.html>

http://www.delhitourism.gov.in/delhitourism/tourist_place/dilli_haat_janakpuri.jsp

<http://www.dillihaat.net.in/>

<https://www.shalusharma.com/dilli-haat-market-delhi/>

<https://www.thehindu.com/news/cities/Delhi/delhi-gets-its-third-and-biggest-dilli-haat-at-janakpuri/article6208771.ece>

박 원 빈 통신원, samc21@naver.com

아동상담에 ‘24시간 다언어 전화통역 서비스’ 도입

일본 미에현(県) / 사회·복지

일본 미에현(県)은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 통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나 가정의 상담 건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기존 통역서비스체계를 개선한 ‘24시간 다언어 전화통역 서비스’를 2018년 11월부터 시행. 이후 서비스체계를 더욱 개선해 대응 언어 확대, 정확한 상담내용 파악, 유연한 상담시간 설정, 현(県) 담당 직원의 업무부담 경감 등의 효과를 얻음

배경 및 목적

- 미에현(県)은 외국인 주민 비율이 약 2.6%로 일본 전국에서 네 번째 규모
 - 일본어를 잘하지 못해 통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이나 가정의 상담건수가 2013년 52건에서 2017년 116건으로 증가
- 그런데 기존의 ‘통역자 파견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노정
 - 대응 가능한 언어가 5개 언어로 제한적
 - 통역 수준이 통역자에 따라 크게 좌우
 - 대응 가능한 시간대에 제약이 존재
 - 통역자를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제약이나 한정된 예산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
 - 통역자와 상담하는 아동 등이 서로 만난 적이 있는 경우 인간관계가 영향을 미쳐 정확한 요구사항 파악을 저해할 우려 존재
 - 통역자 파견 일정 확정 및 조정 등의 과정에서 현(県) 직원의 업무부담 발생
- 이에 현(県)은 필요할 때 통역서비스를 바로 이용할 수 있고, 현(県) 담당 직원이 자신의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24시간 다언어 전화통역 서비스’를 도입·시행

‘24시간 다언어 전화통역 서비스’의 도입 과정 및 주요 내용

- 현(県)은 기존의 통역자 파견 제도를 검증하기 위해 현(県)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전화통역 사업을 도입한 선행사례를 참고하여 아동상담에 전화통역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
 - 또한,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의 협조를 받아 실제 상담을 시행하고, 도입 가능성을 검토
 - 그 결과 아동상담에 전화통역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고, 담당 직원의 업무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

[표 1] 전화통역 서비스 정비 현황

기존 체제	새로운 체제
상담일 결정	불필요
통역자와 일정 조정	불필요
통역자 파견 의뢰	연 1회 계약
일정 변경이 있으면 변경 처리	불필요
통역비용 지급(매회)	통역비용 지급(연 1회)
통역	

- 현(県)은 2018년 11월부터 보다 정확한 통역을 통해 상담자의 요구 파악, 대응 언어를 5개 언어에서 13개 언어로 확대, 24시간 대응 등을 목표로 하는 ‘24시간 다언어 전화통역 서비스’를 시행
- 이후 2019년에는 통역서비스 제공업체와의 계약 내용을 재검토하여 240개 언어에 대응하도록 함과 동시에 가정폭력 상담에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와 여성 24시간 다언어 전화통역(子どもと女性の24時間多言語電話通訳) 서비스’로 전화통역 서비스 체계 충실화를 도모
 - 아동상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탁업체와 상담용어에 대한 협의를 거침
 - 현(県) 담당 직원이 통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 검토

효과

- 전문성 높은 민간기업의 보다 정확한 통역으로 일본어를 잘하지 못하는 아동이나 가정의 요구 파악이 수월해짐
- 현(県) 담당 직원의 업무부담이 줄어들어 상담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 구축
- 아동 등 상담자는 모국어로 상담을 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음

<http://www.nga.gr.jp/app/seisaku/details/6271/>

권 용 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비어있던 산업부지를 상업·업무·주거 복합단지로 재개발

미국 오스틴市 / 도시계획·주택

미국 오스틴市에서는 IBM社가 위치했던 산업부지가 복합용지로 재개발되어 ‘제2의 다운타운’이 조성. 본래 하이테크(hightech) 회사 집적지로 구상되었지만, 계획이 변경되어 상업, 업무,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복합용도 부지로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

배경

- 오스틴 북쪽 지역은 1960년대부터 IBM과 Texas Instrument社가 위치했던 산업지역
 - 1990년대 하이테크(hightech) 산업지역으로 개발하기 위해 IBM社가 부지를 추가 매입하였지만, 2000년대 초반 인터넷산업의 거품 붕괴로 인해 산업부지를 상업, 업무, 주거를 함께할 수 있는 복합용도 부지로 계획을 변경하여 매각
 - 오스틴을 기반으로 하는 부동산 회사인 엔데버(Endeavor)社가 304에이커의 IBM 캠퍼스 부지를 1999년 매입
 - 부지를 매입한 엔데버社는 이 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쇼핑몰 개발 전문회사인 시몬社(Simon Property Group Inc.)와 협력하기로 함
 - 재개발 지역은 ‘도메인(The Domain)’으로 새롭게 지칭

도메인 개발계획의 주요 내용

- 개발 초기 도심과 멀어 성공이 힘들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개발업자들(엔데버社 및 시몬社)은 대형 체인점 입점 및 지역 상점 모집으로 해결
 - 개발업자들은 먼저 대형 백화점 체인인 니만 마커스(Neiman Marcus)와 계약을 체결. 이후 다른 대형 체인 업체들도 입점 확정
 - 대형 체인 업체뿐만 아니라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상점도 성공적으로 모집
- 오스틴市는 개발업자들과 경제개발 협력관계를 맺음
 - 市는 2003년 개발업자들과 세금감면 협약을 맺고 개발업자들에게 약 2,500만 달러(약 300억 원) 규모의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기로 함
 - 市는 1단계 계획인 도메인 I(Domain I) 개발 추진에 따라 2017년 기준 약 1,280만 달러(약 150억 원) 규모의 판매세 및 재산세(property tax)를 감면

○ 2007년 1단계 계획인 도메인 I(Domain I) 개장

- 백화점 니만 마커스와 메이시스(Macy's)를 비롯해 약 70개 상점이 입점
- 루이비통(Louis Vuitton)과 같은 명품 브랜드와 자라(Zara), 포에버21(Forever 21) 등 패션 브랜드 입점



출처: <https://www.austinchronicle.com/news/2007-09-28/543305/>

[그림 1] 도메인 개발계획

- 도메인 I의 개장 이후 추가적인 주변 지역 개발이 진행되어 지난 10년간 오스틴 북쪽 지역의 경제발전 중심지 역할을 하면서 오스틴의 '제2의 다운타운'으로 성장
 - 2017년 현재 41에이커의 상업지역으로 발전
 - 50여 개의 바 및 레스토랑이 위치
 - 현재에도 계속 확장 중
- 최근에는 단순한 상업가(商業街)가 아닌 대규모 IT 회사의 이전을 통해 복합공간으로 성장. 상업지역의 확장으로 주거지역도 조성
 - 2017년 현재 34에이커를 오피스 공간으로 활용
 - 아마존, 페이스북, Indeed, VRBO 등 대형 회사가 위치

<https://www.statesman.com/business/20170310/a-decade-in-the-domain-has-made-its-mark-on-austin>
<https://www.austinchronicle.com/news/2007-09-28/543305/>
<https://www.statesman.com/news/20190503/techs-new-domain-retail-came-first-but-now-domain-has-grown-into-hub-for-tech-companies>
<https://www.businessinsider.com/northwest-austin-texas-domain-second-downtown-tech-headquarters-offices-pictures-2019-10>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구(舊) 공항부지를 ‘저밀도 복합 커뮤니티’로 개발

미국 오스틴市 / 도시계획·주택

미국 오스틴市는 로버트 물러 공항이 있었던 공항부지를 민간협력사업을 통해 ‘물러 커뮤니티’로 개발. 물러 커뮤니티는 상업, 주거, 업무 공간을 통합한 ‘저밀도 복합 커뮤니티’로 재탄생

배경

- 물러(Mueller) 지역은 1936년부터 오스틴의 주요 공항이던 로버트 물러 공항(Robert Mueller Municipal Airport)이 있던 지역
 - 1970년대 공간 부족으로 새로운 공항의 필요성 제기



출처: <https://texashistory.unt.edu/ark:/67531/metaph389229/m1/1/>

[그림 1] 구(舊) 로버트 물러 공항

- 1980년대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저밀도 재개발계획 수립에 착수
 - 시민들은 ‘공항 이전을 위한 시민 모임(Citizens for Airport Relocation)’을 조직
 - 재개발계획의 핵심 내용은 ‘고밀도 중심지의 외곽에 저밀도 개발(low-density development on the edge with high density in the center)’을 한다는 것
- 1990년대 말과 2000년대에 오스틴市는 물러 지역 개발을 추진
 - 1997년 市는 물러 재개발 마스터플랜을 수립

- 1999년 로버트 물러 공항이 폐쇄되면서 2000년대에 본격적으로 재개발 추진
- 2007년 재개발 후 오피스빌딩 및 상점 운영 시작

주요 내용

- 물러 지역은 오스틴의 주요 지역에 가까이 위치
 - 오스틴 시내(downtown)와 4.8km, 텍사스대학교 오스틴 캠퍼스(The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와는 3.2km 떨어진 지역에 위치
- 물러 재개발사업을 통해 약 700에이커의 부지를 새로운 커뮤니티로 재탄생시킴
 - 새로운 커뮤니티는 주거지와 상업지가 어우러진 복합 커뮤니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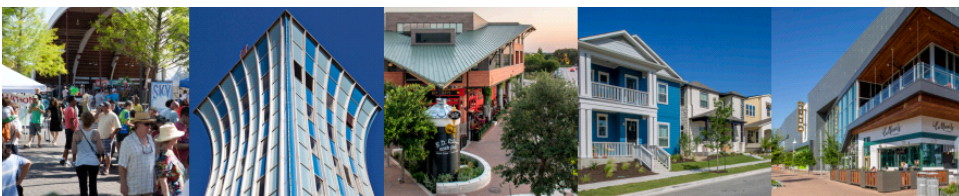


출처: <http://www.muelleraustin.com/about/>

[그림 2] 물러 커뮤니티의 도시개발계획

- 물러 커뮤니티 개발은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으로 추진
 - 민관협력사업의 당사자는 오스틴시와 카텔로 개발회사(Catellus Development Corporation)
 - 이 사업은 수익 창출, 경제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기존 커뮤니티와의 조화, 다양성, 지속가능성 확보를 목적으로 함

- 카텔로 개발회사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市에 제출하고, 市 경제개발부서(Economic Development Department)가 재개발사업을 담당
 - 그 외에 물러 마스터플랜 시행에 조언을 주는 물러 위원회(RMMA Plan Implementation Advisory Commission(PIAC)), 설계를 담당하는 NCC(New Construction Council), 토지 소유자 연합(Mueller Community Associations), 저소득층과 중산층을 위한 적정 가격의 어포터블 하우스(Affordable housing)¹⁾ 공급을 위한 시민단체 물러 파운데이션(Mueller Foundation), 그리고 일반시민들이 개발에 참여
- 물러 커뮤니티 공간은 크게 오픈스페이스, 중심가, 비즈니스 지역, 주택가로 구성
 - 오픈스페이스는 약 20%를 차지하며,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공원이나 놀이터 등으로 구성
 - 중심가는 커뮤니티의 중심에 있는 지역으로, 도보 혹은 대중교통으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문화 및 상업 중심지. 높은 건물의 고밀도 공간을 배제하고 1층 중심의 상점가, 식당, 카페 등으로 구성
 - 비즈니스 지역은 중심가 외에 북동쪽과 동서쪽에 위치한 비즈니스 밀집 지역으로 전체 구역의 약 17%를 차지. 어린이 병원(the Dell Children's Medical Center of Central Texas)과 텍사스대학교의 보건 관련 연구기관이 위치
 - 주택 지역은 중심가 지역 인근에 있어 중심가 지역에 도보로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주차장은 외곽에 위치
 - 주택 지역은 단독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등 다양한 형태로 구성. 전체 주택의 약 25%가 Affordable housing으로 공급



출처: Mueller(2018), It's Happening at Mueller: 2018 Community Report

[그림 3] 물러 커뮤니티의 모습

1) 도심부에서 사무용 빌딩의 개발에 맞추어 공급되는 저·중 소득자를 위한 주택으로, 1980년대 이후 미국의 도심부 오피스 지역 개발과 함께 도입(출처: 네이버 사전, 네이버 지식백과사전, 건축용어사전)

- 상업공간은 Mueller Retail Center, Market District, Town Center District 및 기타로 구성
 - 물러 리테일 센터는 25개 이상의 상점이 입점. 의류 및 생활 잡화 등 실생활과 관련된 상점가 및 카페 등이 위치
 - 마켓 디스트릭트에는 대형 슈퍼마켓과 함께 레스토랑 등이 밀집
 - 타운 센터 디스트릭트는 중심가에 위치하여 여러 종류의 상점, 식당, 문화 공간이 위치
 - 그 외에 주거공간 1층도 상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며,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농산물 직판장인 파머스마켓(farmers market)이 열림. 푸드트럭이 밀집한 지역도 있음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한 노력 수행
 - 도보 및 자전거 친화적인 거리 조성, 대중교통수단 확보
 - 미국 그린빌딩 위원회(U.S. Green Building Council, USGBC)의 LEED 그린빌딩 프로그램을 적용하여 친환경 건축물 조성
 - 오스틴市の 오스틴 그린빌딩 프로그램(Austin Energy Green Building program) 적용
 - 에너지 및 수자원 효율적이면서 비(非)독성, 재활용, 지역에서 만든 자재 등을 활용한 빌딩 건설 권장. 도심의 열섬 현상을 해소하고 대기오염을 개선하며 빗물을 관리할 수 있는 도시설계 적용
 - 우수(雨水) 저감, 홍수 관리를 위한 그린 인프라스트럭처(Green Infrastructure)를 공원, 도로 등에 적용하여 빗물을 관리
 - 오스틴 에너지(Austin Energy)가 관리하는 열병합발전소(Combined Heat and Power Plant)가 커뮤니티 내에 위치하여 어린이병원 및 인근 상업지역에 에너지를 공급
- 2019년부터 호텔 및 기타 주거·상업 시설이 입주하기 시작
 - 부티크 호텔 건설 완료, 오스틴 에너지(Austin Energy) 본사 입주 완료
 - 주거 지역에는 150세대의 단독주택, 400세대의 아파트, 130세대의 저소득층을 위한 아파트가 건설 중
 - 현재 약 8,500명의 주민이 물러 커뮤니티에 거주하고 있으며, 향후 약 1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약 14,00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상업시설 및 공원도 추가적인 공사 예정

<http://www.muelleraustin.com/>

<https://www.statesman.com/news/20190823/muellers-maturation-20-years-in-growth-continues-as-former-airport-site-fulfills-city-leaders-redevelopment-vision>

이 경 선 통신원, kyungsunlee14@gmail.com

세계도시동향 제482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8월 10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